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면 아름다운 것이다



양용기의 건축이야기

안산대 건축디자인과 교수

독일 베를린대학 수학 교수 데이비드 비크호프(David Birkhoff)가 미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적이 있다. 3개의 도자기를 놓고 계산했는데 가장 단순한 형태가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다. 미는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지각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내면의 미를 찾기 어렵다.

시를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인식하거나 지각하지 못하면 그 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소설을 읽으면서 그 소설에 담긴 의미를 인식하거나 지각하지 못하면 그 소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형태도 마찬가지다. 그 형태에 담긴 내용을 인식하거나 지각하지 못하면 그 형태가 갖고 있는 미를 찾을 수 없다.

비크호프 교수가 제시한 미에 대한 계산은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힘들다. 그러나 감성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에 대한 판단에는 사실 형태뿐 아니라 다른 요소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상에

대해 알면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별하는 것은 인지 능력이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식이다.

건축물을 관찰할 경우 대다수 사람은 형태적인 부분만을 판단한다. 실용적인 면보다는 형태에 점수를 더 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본다. 건축물은 사람을 위한 공간을 갖고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건축물은 조형물처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한다.

경험의 방법을 이탈리아의 건축가 브루노 제비(Bruno Zevi)는 3가지로 구분했다. 육체적 경험-감성적 경험-이성적 경험이다.

육체적 경험이란 건축물이 추위더위 등 자연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성적 경험은 디자인을 말한다. 훌륭한 디자인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성적 경험은 곧 기술적인 부분을 가리킨다.

앞의 두 가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가지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경험이다. 이 3개의 경험이 만족스러울 때 우



건축물을 관찰할 경우 대다수 사람은 형태적 부분만을 판단한다. 하지만 '사람을 위한 공간'인 건축물은 조형물처럼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필자 제공

리는 그 건축물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즉 건축물은 보기만 해서 안 된다는 소리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판단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건축물은 이 경험과 관계가 있을까. 답은 '관계만 있다'이다. 아름다움은 약간 다르다. 역사를 통틀어 아름다움에 관한 정의는 정말 수도 없이

많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독창적인 것, 비트르브는 견고한 것, 알버티는 규칙적인 조화, 팔라디오는 기능과 구조적인 것, 칸트는 사실적인 것, 오토와 라이트는 실용적인 것 등을 미의 기준으로 꼽았다. 미에 대한 기준이 너무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미는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가 해외 관광을 가는 것은 대부분 아름다운 도시를 보기 위해서다. 그 아름다운 도시들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고, 관광 일정의 대부분은 건축물을 보는 것으로 채워진다.

앞에서 미는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은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 기준은 개인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객관적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식과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물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을 파악하려면 쉽지 않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 문헌을 찾아볼 수 있다.

건축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축물은 다른 어떤 형태의 사물보다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하다. 건축의 형태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우

리는 양식이라 부른다. 양식은 다양하다. 건축적인 시대 구분이 있었기에 양식 또한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왜 아름다운지 정확하게 찾아 낼 수 있다.

아름다움은 찾는 것이다.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이는 일부이다. 미의 가치는 의외로 다양하다. 앞에서 말한 브루노 제비의 3가지 체험을 한다면 사물은 외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된다.

아름다운 건축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정의도 있겠지만 전문가적인 판단이 이를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두 부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관찰자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름다움의 정의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beautiful(아름다운)'과 'aesthetic(미학적·심미적인)'이다. 전자는 외적인 부분이 강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내적인 부분이 강할 수 있다.

아름다움은 자기 만족이다.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면 아름다운 것이다. 굳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아도 아름답다고 느끼면 그것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우리 주변에 있어 좋다.

골잡이 해리 케인의 소원은 우승 맛보기



스포츠 세상

박병현 디지털뉴스국장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에서 부동의 원톱을 맡고 있는 해리 케인은 잉글랜드 출신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손에이셔널'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다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지 올 시즌이 두 번째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의 주장도 맡고 있다.

케인이 고향 팀이나 마찬가지로 복원된 연고의 토트넘을 떠난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팀 우승에 대한 갈망 한 가지 때문이다. 우승을 맛보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우승 트로피를 놓칠 때마다 무척 힘들었다고 고백한 그는.

단체 구기경기인 축구의 경우 결출한 스타 플레이어를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우

승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다반사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11명이 단합된 팀과 팀워크를 과시할 수 있어야 우승이 가능하다. 이것이 축구의 매력적인 부분이다.

세계 최고 축구선수의 상징인 발롱도르(Ballon d'or-황금빛 공-축구 전문지 '프랑스 풋볼'의 올해의 유럽 남자 축구 선수상)를 무려 7차례나 받고 소속팀 FC 바르셀로나에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0회·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4회 등 수많은 트로피를 수집해 온 리오넬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을 제패하지 못해 월드컵 얘기만 나오면 어깨를 펴 수 없는 처지였다.

그렇지만 메시는 다섯 번 출전 만에 2022카타르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시상식에서 축구 황제로서 대관식을 치를 수 있었고 '메호(메시와 호날두) 대결에서 웃을 수 있었다. 이렇듯 제아무리 훌륭한 MVP(most valuable player-최우수 선수) 등 개인상을 수상하더라도 팀 우승이라는 영광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게 축구의 세계다.

케인은 토트넘 유스팀에서 10년 넘게 활

약하다 18살 때인 2011년 성인팀에 몸담았던 전형적인 토트넘맨이다. 잉글랜드 대표팀 A매치 98경기에서 66골을 터뜨려 최다골 기록을 갖고 있다. 양발을 능숙하게 다 쓰며 신장 188cm·84kg으로 골잡이로서의 피지컬(신체 조건)도 빼어나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찰떡궁합을 과시했던 케인은 EPL 317경기에 출전해 무려 213골을 기록하며 리그 골잡이로서 명성을 날렸지만 가슴 속에는 늘 아쉬움이 자리했다. 케인은 손흥민과 8년간 공격수로서 명품비를 이루 무려 47골을 합작했지만 무관도 그쳤다. 커리어 내내 차지한 트로피가 단 한 개도 없어 '무관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하다.

케인은 EPL에서 13년간 활약하며 득점왕 3회·최우수 선수 등 개인상을 모두 받았지만 정작 필요했던 팀 우승을 이루지 못했다. 2018년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때는 득점왕도 차지했다.

케인은 우승에 대한 한을 풀고자 결핍하면 우승컵을 들어올릴 만한 구단으로의 방출을 요청했지만 늘 거부당했다. 토트넘 구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골잡이 해리 케인이 지난달 10일 친정팀 토트넘 홋스퍼와의 친선경기에서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단으로서 케인이 적군으로서 칼을 겨눌 것이 두려웠던 게 사실이며, 그만큼 공격자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트넘에서 번번이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 그는 계약기간 1년을 앞두고 마침내 이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것도 우승 전문가라고 일컬을 만한 바이에른 뮌헨이었다. 뮌헨은 케인의 몸값으로 토트넘에 8640

만 파운드(약 1480억 원)를 지불했고 케인의 활약에 따라 토트넘이 추가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1900년 창단한 바이에른 뮌헨 클럽 역사상 최고 영입 이적료인 동시에 분데스리가 역대 최고 이적료였다. 등번호도 토트넘에서 달던 '9'를 그대로 배정해 주는 등 케인을 최대한 예우했다.

케인이 지난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당시 그가 드디어 우승을 맛볼 줄 알았다. 바이에른 뮌헨은 12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루며 '우승=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공식이 성립돼 있었기 때문이다. 케인의 우승컵은 때어놓은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기대감은 산산 조각났다.

케인은 결출한 골잡이답게 독일 땅에서 이적 첫 해 36골(8어시스트)을 올리며 제 몫 이상을 다했지만 리그 우승을 만질 수 없었다. 그러나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사비 알론소(스페인) 감독이 이끄는 바이에른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28승6무)으로 정상을 밟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 3위로 처졌다.

새로운 시즌이 또 시작됐다. 신발 끈을 동여맨 케인이 2024-25시즌에는 평생 소원인 우승컵을 들어올릴지 흥미진진하다. 지난 시즌 부진을 겪은 바이에른 뮌헨은 우수선수를 대거 영입하며 외산상당중이니 이번엔 좋은 성적을 낼 것 같다. 내년 5월까지 팀당 34경기를 치르는 분데스리가의 관전 포인트다.

드디어, 총선백서가 나왔다.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가 쓴 '대세-반대세, 이희천의 재집권전략'

저자 이희천

이 책은 국민의힘이 총선에 대패한 원인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진영이 현 상태로 어영부영 가면 2년 뒤 지방선거 완패, 3년 뒤 대선에서 완패해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김정은체제-적화통일로 가는 대문이 열린다. 이 비극을 막으려면 윤석열정부·국민의힘·애국단체들·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이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공산화를 막고 전세를 역전할 방법이 있다. 이 책이 그 구체적인 재집권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86쪽 (신국판변형) | 정가 16,000원
도서출판 대추나무
문의 010-8799-1500

일찍이 이 책이 나왔더라면 자유민주진영이 현재처럼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시지탄(때늦은 탄식)의 아쉬움이 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